

21세기는 왕도의 일중·미중 제후 시대로 (7)

◎ 중국이 왕도를 가기 위하여도 일본이 철저하게 손을 잡자

현재 호금도 시대의 10년간은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호금도라는 인물은 호요방(胡耀邦)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후계자로서 발탁되어 공산주의 청년단의 제1서기가 된 사람이므로 호요방의 사상과 특징을 이어 받고 있다.

바른대로 말하여, 호금도는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다고 본다. 호금도는 기무라의 말대로 정말로 일본과 철저히 사이좋게 지내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중 양국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는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측은 호금도와 강택민을 똑같이 보고 있으며, 호금도의 참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 문제이든 대일 정책이든 기본적으로는 달라지고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많았던 이전과 비교하여 호금도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 더욱이 장기적·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미 외무부의 일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50년 동안 중국과 가까이 지내온 나의 체험으로 보면 호금도 정권의 중국이면, 반드시 잘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내 나름대로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호금도에 대한 평가는 내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다.

일본이 자국의 헌법을 갖고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면, 세계가 자립할 수 있는 나라로서 인증할 것인가? 아니다.

아시아의 문제 중에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손을 꼭 잡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든싫든 간에 일본과 중국은 철저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중국과는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반(反)중국 분위기라는 것은 얼마 안가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일중 관계가 가장 나쁜 시기이다. 가장 나쁜 시기라는 것은 앞으로 “확 뒤집혀 좋아지기 직전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일중 관계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낙관하여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잘 될 것으로 자신이 있다.

단지 일본인 자신은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도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낀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것을 번역한 헌법이니 고치자고 한다. 고쳐도 좋지만 헌법을 고쳐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면, 세계는 일본을 어른답게 자립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군사력으로 행세하려는 사상을 갖고 가장 중요한 민족적 프라이드에 의한 자립심이 없는 한, 세계는 일본을 자립할 수 있는 나라로 봐주지 않는다고 본다.

안전 보장 이사회를 둘러싼 국제연합의 움직임을 봐도 또는 북한을 둘러싼 6개국 협의를 봐도 일본은 모기장 밖에 있다. 그것도 경제력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라는 전혀 다른 민족적 프라이드를 갖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은 민족의 긍지를 되찾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주성을 관철하여야 한다. 역사의 전환점을 직접 맞아, 일본은 자주성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특히 경제력, 문화력, 기타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문화의 힘, 매스컴 문화도 포함하여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영화 “겨울의 소나타”를 본 일본 여성이, 주역인 배용준이 일본에 온다고 하여 공항에 3천명 정도 모였다고 한다.

나는 영화를 잘 모르지만, 하나 알게 된 것은 그 영화 하나로 이제까지 한국인을 낮게 보고 경멸한다는 생각이 일본에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봐도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문화 교류를 한 성과로 한국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좋아졌으며, 그 영화로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문화의 힘을 더 철저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나왔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전쟁을 총괄하여 2차 대전에 관한 모든 사실을 하나로 묶어 결말을 냈는데, 일본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야스쿠니 문제 등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거듭되는 패전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왜 전쟁을 하였느냐, 왜 전쟁에 졌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2차 대전 후 철저하게 총괄하였다. 과거에 대한 전 책임을 독일 국민 전원이 지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외쳐,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바이츠제커 대통령을 중심으로 독일은 착실하게 총괄하였다. 진지한 총괄을 살린 결과, 오래 전 적대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독일·프랑스를 핵심으로 한 EC·EU를 만들어 냈다. 통일 통화인 유로(EURO)도 성공하여 위대한 성과를 올렸고, 현대사에 새로운 조류(潮流)를

창조하였다. 그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EU의 핵심으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총괄을 할 기력도 자주성도 잃어 패전으로 혼쫓이 난 채로 “국민 1억 총 참회”로 끝내, 그대로 일미 군사 동맹 체제로 들어가 미국 예속 하에서 6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른다. 그 동안 대중국 전략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최근에는 대중국 일·미 공동 전략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대미 종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같은 패전국이라도 총괄을 철저히 하고 자주성을 계속 지켜온 독일과 국제적인 평가의 차이는 뚜렷하다.

모범적인 종속국이 되어서는, 일본이 세계로부터 자주국의 대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나는 현재 조그마한 국민 운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각계에서 강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느끼고 있는 것은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기타 대학의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과 비교하여 기운이 없으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민족적인 자립심과 프라이드를 잃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민족적인 긍지를 되찾으려면 건전치 못한 일미 관계를 대등한 동맹 관계로 시정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섭을 추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표면에서는 옹고 그름을 철저히 따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 일본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까딱도 안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통하는 일중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